

만해축전추진위원회는 8월 12일 강원도 인제 하늘내린센터에서 제21회 만해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21회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동국대**

“생명 · 평화 가치 세상에 알려지길”

만해대상 시상식… 하얀헬멧 · 제인 구달 등 수상

11~14일 인제서 만해축전
문학 · 예술 문화행사 ‘풍성’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이며, 근현대 선지식인 만해 한용운(1879~1944) 스님의 생명 평화와 문예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제정된 만해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만해축전추진위원회(위원장 이관제)는 8월 12일 강원도 인제 하늘내린센터에서 제21회 만해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만해축전 명예대회장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정만호 강원도 경제부지사, 이순선 인제군수, 주호영, 황영철 국회의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만해평화대상은 시리아 내전 현장에서 지난 3년간 8만명을 구조한 구호 단체 ‘하얀 헬멧’, 만해실천대상은 세계적인 동물학자 제인 구달, 만해문예대상은 최동호 고려대 명예교수와 클레어 유(한국명 임정빈) 미국 UC 버클리 한국학센터 상임 고문이 공동으로 수상했다.

만해평화대상 수상 단체 ‘하얀 헬멧’의 대표 라이드 알살레는 “우리는 총 대신 ‘들 것’을 들었고 피해자가 어느 편이건 상관없이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다. 전쟁은 어디에도 승자와 패자가 있을 수 없기에 우리 모두 사람을 사랑하고 평화를 갈구 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만해실천대상 수상자 제인 구달 박사는 “인간은 동물들과의 향연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며 “자연에 대한 공격을 멈춰야 함께 살아가는 길이 열릴 것이며, 나 자신 또한 끊임없이 세계에 희망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만해문예대상을 수상한 최동호 명예교수는 “만해의 시를 읽으며 문학을 시작했다. 더 높은 성취를 향한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클레어 유 상임고문은 “한글과 한국어로 세계를 연결해왔다. 문화와 이념을 연결하는 교량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성민 기자**

수현사, 혁신도시 포교거점으로 ‘우뚝’

8월 13일 금산사 전주포교당 수현사 삼존불 점안

문수 · 보현 이름 딴 수현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
문화공연 다목적 법당 등
새 포교도량 위용 갖춰



금산사는 전주혁신도시에 세워진 포교당 수현사에서 삼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가 지역불교활성화와 포교를 위해 전북혁신도시에 건립한 수현사에 삼존불이 점안됐다.

금산사(주지 성우)는 8월 13일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전주혁신도시에 위치한 수현사에서 삼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의미를 담아 수현사로 이름 붙여진 전주혁신도시 포교당은 대지 2,009㎡(약 600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910㎡(약 1500평) 규모로 지어졌다. 토지매입대금 약 12억 원과 공사비 30억 원 등 총 4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전주 신도심의 포교전략 거점으로 활용될 수현사는 4층 큰법당과 지장전, 교육관, 생활관, 강의실, 식당, 주차장 등의 시설을 갖췄으며, 1층에는 금산사 복지원 주간보호센터가 들어섰다. 특히 석가모니불과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의 삼존불이 봉안된 큰법당은 3층과 4층이 합쳐진 구조로 350석의 좌석을 갖춰 문화공연이 가능한 다목적 법당으로 쓰일 예정이다.

큰법당에서 열린 점안식은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을 증명법사로 불교전통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점안법회에는 월주 스님, 성우 스님, 중앙종회의원 화평 스님, 덕산 스님 등 17교구 본말사 대중스님들과 이근재 전북불교신도회장 대행, 박성일 완주군수, 서울 영화사와 금산사를 비롯한 지역불자 700여 명이 참석했다.

월주 스님은 법어를 통해 “그동안 수현사 건립불사를 위해 애쓴 원행 스님과 금산사 사부대중에 노고에 찬사를 보낸다. 32상 80종호를 갖춘 불보살은 불자들의 원력으로 나투게 됐다”고 격려했다.

스님은 이어 “수현사 도량에서 지혜를 얻고 뛰어난 위신력으로 자비를 실천하는 도량으로 발전시켜 주길 바란다”며 “훌륭한 지역의 지도자가 되어 낙후된 전북지역 불교를 활성화 시키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성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수현사 옥상에 전통방식의 법당을 추가로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청정한 눈을 뜨고 평화로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수현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산사는 수현사 내부시설을 갖춘 후 별도의 준공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전주시 만성동과 완주군 이서면 일대 990여만㎡의 부지에 조성되고 있는 혁신도시는 현재 한국전기안전공사,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업과학원 등 12개 공공기관이 이미 이전을 마쳤거나 이전을 준비중이며, 이들 기관의 직원 수만 4700여 명에 달한다. 주변에 대규모 상가와 아파트가 이미 건립돼 입주를 마친 상태다. 전주혁신도시의 전체 인구수는 약 3만 명 정도로 전망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더위 날리는 선운사 특별템플스테이

방학 · 휴가철 맞아 기획… 8월 25일 3차 예정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가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내안의 나에게’ 특별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사진〉

자연 속에서 내면의 자아를 찾기 위해 기획된 선운사 특별 템플스테이는 8월 11~13일까지 2박3일간 선운사, 도솔암, 진흥굴, 선운산 일대에서 ‘자연과 하나되기’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지난 7월의 1차에 이어 두 번째 진행된 이번 특별 템플스테이는 걷기명상, 선운산 트레킹, 좌선, 풍등 날리기, 물놀이, 만다라 그리기, 스님과의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선운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원정 스님은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일상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휴식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선운사는 오는 8월 25일에도 3차 ‘자연과 하나되기’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평화의 소녀상, 부모처럼 모셔”

군산 동국사, 소녀상 건립 2주년 행사 열어

국내 유일의 일본식 사찰인 군산 동국사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 2주년을 맞았다.

군산 평화의 소녀상 건립위원회(공동대표 이승우)와 동국사(주지 종걸)는 8월 12일 동국사 내 평화의 소녀상 건립 2주년을 기념하는 추념식과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추념식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된 희생자에 대한 묵념과 평화의 소녀상 건립 경과보고, 헌공다례, 헌화, 추념사, 헌시 낭독, 추모공연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에서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은 “군산 동국사의 소녀상은 다른 곳의 소녀상과 달리 일제의 만행을 참회하는 일본 조동종의 참사비를 배경으로 서 있어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며 “평화의 소녀상이 시민의 성원으로 세워진 만큼 부모님을 모시는 심정으로 돌보고 있다”고 말했다.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이 평화의 소녀상에 헌화하고 있다.

추모공연에서는 비나리, 살풀이 춤 등이 진행됐으며, 추념식에 이어 동국사에서는 ‘여름밤 근대문화유산 빛의 거리를 걷다’라는 주제로 문화공연이 펼쳐졌다.

8월 12~13일 이틀간에 걸쳐 진행된 군산야행 프로그램에는 군산 그린비 합창단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인들이 출연해 관광객들에게 깊어가는 한여름 밤의 감동을 선사했다.

동국사와 근대역사박물관에 이르는 2㎞구간에는 근대문화유산이 인쇄된 등불이 불을 밝히는 등불거리가 조성됐다. 또 동국사 산사음악회를 비롯해 스탬프 투어, 독도 목걸이 만들기, 공예체험 등 14개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인들이 출연하는 공연과 전시, 관람행사가 열렸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 부처님오신날 옛 사진을 찾아요”

광주불교聯, 과거자료 수집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는 옛 광주지역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옛 자료를 찾는다. 수집 자료는 1990년 이전에 촬영된 연합봉축행사 사진과 영상, 기타 다양한 자료 등이며, 2018년까지 진행한다.

사진문화기획단장 무등 스님은 “옛 자료는 광주전남지역 불교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그동안 수집하지 못해 역사기록이 사라질 염려가 있다. 이에 연합회 차원서 호남불교 역사를 정립하고자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부처님오신날 행사는 고려시대까지 태황사(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자리)를 중심으로 무등산 인근 지역 사찰들이 이어왔으며, 조선시대에도 명맥을 유지했다. 일제강점기 이후 사찰별로 이어오던 봉축행사는 1960년대 들어 본격적인 연합행사로 확대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062)385-1311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최신형 대출력 앰프로 보상 교환설치 실시!!

단 160만원 만 준비하시면, 현재의 앰프설비를 300만원대 고급음향 설비로 교체 해 드립니다

※ 설치 희망일 3~4일 전에 예약 바랍니다. (종래 사용하던 앰프, 스피커는 보상, 회수해 옵니다!)

고출력 파워드 믹싱 앰프



USB탑제 최신형 800 왓트

◈ 선착순 예약 주문하시는 사찰 10곳에 한해 무선 마이크 및 CD기(65만 상당)를 무료 보시합니다.

추가 설치 및 보시 품목

① 대출력 800 왓트 파워드 믹싱 앰프	1대 (자체 USB탑제)
② 입력 450W 대출력 용 스피커	1조
③ 무선 마이크	1대 (무료보시)
④ 최고급 CD기(5개 연속 사용)	1대 (무료보시)

“중고 앰프 다량 보유!”

무선마이크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CC 플레이어 (연속 5개 사용)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 (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 (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 (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 (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